

광주FC, 수원 잡고 7위 마감… 코리아컵 결승 간다



광주는 30일 수원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수원FC와의 하나은행 K리그1 2025 38라운드 경기에서 1-0으로 승리했다. 올 시즌 K리그1 최종 경기에서 승리를 따낸 광주는 15승 9무 14패 승점 54점을 기록, 리그 7위로 모든 일정을 마쳤다. 사진은 헤이스가 선제골을 터뜨리고 세레머니를 하는 모습. 사진제공=광주FC



프로축구 광주FC가 리그 최종전에서 수원을 꺾고 7위로 시즌을 마감했다. K리그1 일정을 모두 마친 광주는 오는 12월 6일 코리아컵 결승에서 우승이라는 새역사에 도전한다.

광주는 30일 수원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수원FC와의 하나은행 K리그1 2025 38라운드 경기에서 1-0으로 승리했다. 올 시즌 K리그1 최종 경기에서 승리를 따낸 광주는 15승 9무 14패 승점 54점을 기록, 리그 7위로 모든 일정을 마쳤다.

올해 광주는 K리그1, AFC 챔피언스리그(ACLE), 코리아컵을 병행하면서도 눈에 띄는 성과를 거뒀다. 먼저 2024-2025 ACLE 16강전에서 비셀 고베를 1·2차전 합계 점수에서 앞서며 8강 진출

이정호 감독이 이끈 광주는 이날 4-4-2 포메이션을 가동했다.

오후성과 박인혁이 최전방에 이름을 올렸다. 중원은 안혁주, 문민서, 이강현, 최경록을 배치했다. 후방은 조성권, 진시우, 안영규, 권성윤이 맡았다. 골키퍼 장갑은 노희동이 꼈다.

광주는 전반 초반부터 위기를 맞았다. 전반 7분 상대 윌리안의 오른발 중거리 슈팅이 골문 옆으로 살짝 벗어났다.

전반 34분에는 광주가 반격에 나섰다. 코너킥 상황에서 최경록이 올린 크로스를 안영규가 헤더로 연결했으나, 골대 옆으로 지나갔다.

6분뒤에는 상대 안준수의 패스 미스가 나왔다. 이를 박인혁이 가로채 슈팅을 때려냈지만 상대 수비에 막혔다.

원정서 1-0 승… 후반 4분 헤이스 결승골 폭발

리그 15승·승점 54점… 3년 연속 1부 잔류 확정

출에 성공했다. 역대 사·도민 구단 중 ACL 무대에서 8강에 오른 건 광주가 최초다. 비록 4강 진출에는 실패했으나, 8강 진출 자체로도 큰 의미가 있었다.

K리그1에서는 소기의 목표를 이뤘다. 지난 35라운드 제주SKFC와의 경기에서 2-0으로 승리하면서 최소 9위를 확보, 1부리그 잔류에 성공한 것. 이로써 3년 연속 K리그1 잔류라는 성과를 기록했다. 이번 리그 최종전에서도 승리를 따내면서 지난 시즌의 승점(47점)을 훨씬 넘어섰다. 승수 또한 지난 시즌 14승을 넘어 이정호 감독과 선수단이 설정한 '최소 15승 목표'를 달성했다.

이제 광주에게 남은 과제는 코리아컵 결승전에서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것이다.

앞서 광주는 2025 하나은행 코리아컵 준결승에서 부천을 1·2차전 합계 4-1로 앞서 결승행 티켓을 거머쥐었다. 광주가 코리아컵 결승에 오른 것은 창단 후 처음이다. 이로써 오는 12월 6일 전북현대와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우승 트로피를 건 마지막 대결을 펼치게 됐다.

구단 사상 최초 코리아컵 결승에 진출한 광주는 우승의 새역사를 바라본다.

전반 추가시간이 1분이 주어졌으나 추가골이 나오지 않았다. 결국 전반전은 0-0으로 끝이 났다.

광주는 후반 시작과 함께 안혁주 대신 헤이스를 투입하며 공세를 강화했다. 이 교체 카드는 곧바로 적중했다.

후반 4분 상대 진영 인근에서 공을 잡은 헤이스가 상대 수비를 제치고 쏘아냈다. 이후 점착한 왼발 슈팅을 날리면서 그대로 골망을 갈랐다.

후반 17분에는 권성윤, 안영규 대신 심상민, 민상기가 투입됐다. 6분 뒤 문민서 대신 신창무가 그라운드에 나섰다.

상대는 승부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거센 공격을 퍼부었다. 후반 27분 상대 윌리안이 광주 진영 인근에서 골키퍼를 제치고 골망을 흔들었다. 하지만 오프사이드가 선언되면서 득점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후반 44분에는 상대 싸박의 강력한 슈팅을 노희동이 안으면서 광주가 실점 위기를 넘겼다.

이어 후반 추가시간에도 상대 윌리안이 골을 기록했으나 심판이 오프사이드를 선언, 경기는 1-0 광주의 승리로 끝이 났다. 이로써 광주는 기분 좋게 12월 6일 열리는 코리아컵 결승전을 치르게 됐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도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 역량 키운다

전남생활체육지도자 워크숍, 시·군 지도자 260명 참가

전남 생활체육의 최일선에서 활약하는 지도자들이 역량 강화를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28일 전남도체육회에 따르면 최근 남악 스카이에딩컨벤션에서 '2025년 전남생활체육지도자 워크숍'을 개최했다.

전남도체육회가 주최·주관, 전남도, 대한체육회,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한 이번 워크숍에는 전남 22개 시·군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와 관계 직원 등 약 260여명이 참가했다.

이번 행사는 생활체육 현장에서 도민과 가장 가까이 소통하는 지도자들의 전문성과 직무역량 향상을 목표로 마련됐다.

올해 교육 프로그램은 퍼퓸 클래스(향수 만들기 체험), 코칭 커뮤니케이션 교육 등 체험 중심·실무 중심 과정으로 구성됐다.

행사 오전에는 체험 중심의 교육으로 진행됐다. 목포향수공방 노즈(Noz) 이다영 강사가 진행한 퍼퓸 클래스에서 참가자들은 조향의 기본 원리를 배우고 자신만의 향수를 직접 제작했다. 향수를 만들면서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서로의 감각을 공유하는 과정은 워크숍의 기억을 특별하게 남겼으며, 지도자들이 감성적 소통의 폭을 넓히고 자기 표현을 경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됐다.

오후에는 에듀인 인재개발 아카데미 김유정 강사가 코칭 커뮤니케이션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은 경험 기반 및 경험 매트릭스, 질문 유형 전환(폐쇄형→개방형), 코칭형 대화법 실습, 생각 정리 및 공유 등 실제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능력 향상에 초점을 맞췄다.



교육 프로그램 중 퍼퓸 클래스 진행 모습.

이번 교육을 통해 지도자들은 단순한 대화 기술을 넘어, 현장에서 곧바로 적용 가능한 실질적인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익히는 뜻깊은 시간이라며 만족했다.

정재희 목포시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는 “이번 워크숍은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교육과 색다른 체험 프로그램이 함께 진행돼 매우 유익했다”고 전했다.

송진호 전남도체육회장은 “생활체육지도자분들은 도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책임지는 핵심 인력”이라며 “이번 워크숍을 통해 지도자들이 전문성을 더욱 높이고, 자신감과 성취감을 느끼며 현장에서 활력을 펼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전남체육의 발전은 현장에서 땀흘리는 지도자들의 노력에서 시작된다”며 “앞으로도 전라남도체육회는 지도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교육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광주야구소프트볼협회, 호치민과 ‘자매결연’

김성한 회장 등 20명 호치민 찾아 협약·친선 교류전

광주시야구소프트볼협회가 베트남 야구 교류의 장을 마련했다.

30일 광주시야구소프트볼협회에 따르면 최근 김성한 회장, 나진복 부회장 등 20명의 협회 임원 및 사회인 야구동호회 선발팀이 호치민을 방문해 자매결연 협약식과 친선 교류전을 펼쳤다.

호치민 야구협회는 현재 4개팀 100여명의 선수가 활동 중이다. 정규 야구장이 없어 축구장을 빌려 리그를 진행하는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다. 광주시야구소프트볼협회는 무더위와 열악한 시

설 속에서도 꾸준히 야구를 이어가는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추진하게 됐다.

먼저 진행된 ‘제1회 광주시·호치민 친선 아마추어 야구 교류전’에서는 배움과 배려가 오갔다. 광주시야구소프트볼협회는 야구를 사랑하는 호치민 야구인들에게 격려하며, 현지 야구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도 힘을 아끼지 않았다.

1차 교류전 이후 양측은 자매결연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자매결연은 이동철 호치민 야구협회 고문

이 수차례 한국과 베트남을 오가며 준비한 결과이다. 이에 공감한 김성한 광주시야구소프트볼협회 회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과 친선 도모, 그리고 스포츠마케팅 및 선수·임원 간 정기적인 교류 행사 추진에 한국과 베트남의 야구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배트와 연습봉 등 야구용품 전달한 김성한 회장은 “베트남 야구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야구용품과 장비 지원은 물론 야구 코치 지도자 지원 파견에도 적극 나서겠다”며 “앞으로도 한국과 베트남 야구인들이 상호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광주시야구소프트볼협회 소속 임원들과 사회인 야구동호회 선발팀은 최근 베트남 호치민을 방문해 자매결연 협약식을 갖고 친선 교류전을 펼쳤다.